

# 민족문화 선양 앞장설 이 사람에게 주목을...

불자로서 역사학자로 활동해 온 최광식 前 국립박물관장이 신임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불교미술에 폭 빠져있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 사학과 교수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폭을 넓혔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불교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나은 기자

## 학창 시절 월정사서 3000배 정진 최 광 식 신임 문화재청장

최광식 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월 8일 문화재청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광식 신임 문화재청장(68·사진)은 한국고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첫 역사학자 출신 관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립중앙 박물관장에 임명된 최 신임 청장은 3년간 관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또 박물관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만찬장을 유치해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최 신임 청장은 역사학자답게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물 전시관에서 종합역사 박물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끌었으며,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고려불화대전' 등 크고 굵직한 기획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려대박물관장을 재직할 시절인 2000~2008년에 최 신임 청장은 북한 유

물을 최초로 가져와 고구려전을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 수감한 '문화 예술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전시, 기획을 열어 대학박물관의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중국의 동북공정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 격인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신임 청장은 독실한 불자로도 유명하다. 최광식 청장은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월정사 취재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3000배를 한 일을 계기로 독실한 불자가 됐으며, 그의 아들과 딸도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 “재밋고 편안한 박물관 만들고 싶다” 김 영 나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어떻게하면 관람객들을 위해 편안한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지난 8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김영나 신임 관장(60·사진)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선진이 25년간 지켜온 박물관을 41년 만에 막내딸이 맡게 돼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김재원 박사(1909~1990)의 셋째딸이다. 그의 언니는 불교 조각 연구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69)다. 1969년 경기여고를 졸업한 그는 올랜버그대에서 미술과를 전공,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양미술사학회 회장,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김영나 관장은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극찬했다. 김 관장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70년대에 경주 석굴암을 가서 보았다. 석굴암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미술사를 배우고 난 후에 보니 '이게 참 대단한 조각이구나' 하면서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낀다. 첫째 언니를 통해 열심히 불교미술을 배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했던 '고려불화대전'이 너무 좋았다. 불교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교미술과 관련한 전시들을 연구·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 “대중이 민족문화 향유할 문화센터 만들자”

#### 유대인 문화센터 벤치마킹 제안



뉴욕 맨해튼 92번가에는 연간 30만 명이 찾는 문화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교육, 공연, 강좌, 춤, 음악, 예술, 문학, 영화, 체육 등 200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지식인들이 모인다는 이 곳은 예술 공연과 저명인사의 강연으로 늘 북적댄다. 이곳은 1874년 독일계 유대인 사업가에 의해 설립됐다. 비영리기관인 '92가 청년유대인 연합회'가 설립했다고 해서 Y문화센터(92nd Street Y·사진)라 불리기도 한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같은 유대인이 설립한 문화센터를 불교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글을 게재한 B씨는 “'92nd Street Y센터'는 맨해튼에서 제일가는 문화센터이다. 이곳은 종합대학을 방불케 한다. 교육, 공연, 강좌, 문화, 운동, 청소년, 유아를 통합한 종합교육시설이다”며 “Y문화센터는 예술공연과 저명인사의 강연은 늘 매진인

고 티비나 신문에서 자주보는 인물들이다.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최고급을 자부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특히 유대교 활동은 전체 프로그램의 10% 안팎이다. 이것이 주류의 문화센터라면 비주류들의 센터는 인종별로 분산돼 있다. 인종을 넘어선 곳은 오픈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정신, 치유, 요가, 명상 등 영적 계발을 위한 강좌들이 많다. 이곳은 사설기관이지만 불교강좌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B씨는 조계종에서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 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포교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고 있지만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포교라고 본다”며 “이미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도 없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성이 다. 종단의 수장이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불교 진흥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92nd Street Y를 벤치마킹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센터가 탄생하길 발원해 본다”고 했다. B씨의 의견 제안에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문화를 통한 불교 메시지 전달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러한 문화센터는 수익성 차원에서 어렵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과 보조금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카톨릭의 투명한 재정 운영 시스템을 불교계도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 총체적 난국 불교시민사회단체 ‘길을 잃다’

불교시민운동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형성된 의식을 통해 교단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종단개혁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남북평화, 사회복지, 국제구호사업,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를 위한 시민운동까지 확대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불교 시민운동의 성장기에는 종단과 정부에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이어진 운동방식은 불교시민운동을 관성화 타성에 빠지게 했다. 현실 이해와 인식 부족, 시민운동 내부의 관료주의와 매너리즘 심화, 사회적 이슈 선점 실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축소로 인한 지도력 상실 등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사이 활동가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성장했고, 인터넷을 비롯한 소셜네

트워크 등을 통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이슈화하며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의 이런 현상은 최근 흥역을 잃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뿐만 아니라 5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단체들의 공동체 고민이다. 과거 수경 스님과 지율 스님이 환경운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시민사회의 정치적 편향성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중재나 대화의 장 마련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상실할 때 시민들은 등을 돌린다.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욕구를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단체를 조직할 만큼 개인의 역량과 홍보 수단이 확대됐기 때문

추진안으로 실행돼 패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단체도 이웃종교 시민단체들의 이슈선점, 여론 주도권 상실에 대한 조급함과 강박관념이 조직과 활동가들의 힘을 다 빼놓은 결과다. 장재원 교육국장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비판 및 견제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상생활과 신행활동, 시민운동이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다. 교리와 신앙에 투철하면서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지속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슈나 아젠다 이외에도 지구화, 정보화, 다문화, 지식사회, 저출산, 노령화 등을 연구해 운동의 내용과 형식, 조직운영과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된다. 이상언 기자

### 변화없는 운동 시스템 메아리 없는 외침 사회 실질적 변화와 흐름 대처 역량 요구

동에 나서면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 운동의 영향력은 급감했다. 차명제 녹색재단 부대표는 “현재 시민운동의 위기는 헤게모니 창출의 실패이거나 현 정부의 성공적인 헤게모니 창출

에 외로운 비명소리가 될 때도 많다.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소진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전불교환경연대 장재원 교육국장은 “전성상 살리기 운동, 새만금, 4대강 반대 운동 등 모두 목숨 걸고 한 일이지만 결국 정부의

## 2011년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공고

### 3월 11일까지 접수... 5대 결사 관련 프로그램 가산점

2011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이 2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공모사업은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과 불교의 사회참여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공모분야는 통일, 국제, 환경, 종교평화, 사회통합 분야에 적합한 내용이면 가능하고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5대 결사(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은 분야별 대상과 차상을 뽑아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은 종단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정은 대상과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만 가능하다. 2개 단체 이상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하다. 이주민 및 다문화 관련 사업은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4500만원이며 접수 기간은 2월 14일~3월 11일까지다. (02) 2011-1829 박기범 기자



#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苦)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님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10점 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거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하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명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행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 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환식 합장

대불성지공원건립 발원  
불법을 배울 수 있고! 인성을 바로 할 수 있으며! 심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삼존 대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좌상을 테마로 한 공원 건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불사에 뜻을 두고 계신분이나 불사 목적으로 토지(실소요면적 약 6만평)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시기를 원합니다.

작품규격 : 28cm x 43.5cm  
재질 : 원뿔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환식)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명화 3.3x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명화 8.8x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명화 13x2.1m 조계사 2만불 조성 명성(신중명화) 17x15x24cm